서태지, 9월2일 잠실서 데뷔 25주년 콘서트

가수 서태지가 데뷔 25주년을 맞아 9월2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기념 콘서트를 연다.(스포츠동아 3월14일자 단독보도) 2015년 2월 9집 '콰이어트 나이트' 기념 앙코르 공연 이후 2년 만의 무대다. 이번 공연은 롯데카드의 문화 마케팅 프로젝트인 '무브 사운드트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한류 4.0 시대' 시장 다변화 모색이 살길

'한한령'에 길 잃은 케이팝, 일본·홍콩으로…

한류 콘텐츠에 대해 중국이 그 문을 점점 닫고 있다. 이른바 '한한령'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은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가해지고 있다. 장기화 우려의 시각 속에 한류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류의 기존 주요 시장이었던 일본과 홍콩이 달리 보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1990년대 말 한류의 싹이 트고(1.0), 일본에서 꽃을 피운 한류(2.0)는 광대한 중국 시장(3.0)을 거쳐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스포츠동아는 이를 '한류 4.0'이라 이름 붙였다.



일본 공략에 나선 케이팝 그룹들. 방탄소년단과 엑소, 트와이스(위부터 아래로)가 전면에 나선다.
사진제공 | 빅히트·SM·JYP엔터테인먼트

업텐션·SF9 등 일본 시장에 출사표
트와이스는 도쿄체육관서 쇼케이스

케이팝 유망주들이 올해 잇따라 일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지에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3월8일 일본 데뷔 음반을 낸 업텐션을 필두로 몬스타엑스, SF9, 트와이스가 올해 열도 공략에 나서는 유망주들이다. 작년 말 데뷔한 스누퍼, 데뷔를 준비 중인 세븐틴도 케이팝의 든든한 미래를 예감케 한다. 동방신기와 빅뱅이 일본에서 최정상급 위치에 올라 있고 엑소와 방탄소년단이 든든한 허리를 이루는 상황에서 신진세력들의 합류로 일본에서 케이팝이 또 한 번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남성 10인조 업텐션은 일본 데뷔 음반 '아이디'가 발표 당일 16만7000장을 돌파하며 엑소를 누르고 역대 해외가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절도 있는 군무와 파워 넘치는 퍼포먼스, 남성적인 매력이 현지 팬들을 사로잡은 배경이다.

몬스타엑스는 일본 유니버설뮤직이 설립한 레이블 '머큐리 도쿄'를 통해 5월17일 데뷔 음반 '히어로'를 발표한다. 머큐리 도쿄는 유니버설뮤직이 몬스타엑스의 현지 데뷔를 위해 세운 레이블이다. 유니버설뮤직 측이 몬스타엑스에 거는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SF9은 6월7일 '팡파레'를 발표하고 현지 메이저 무대에 정식으로 나선다. SF9은 이미 워너뮤직 재팬과 국내 보이그룹 최초로 계약을 맺어 화제를 모았다. 워너뮤직재팬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SF9의 데뷔 쇼케이스를 참관한 후 "무한한 재능과 가능성을 느꼈다. 미래가 기대되는 무서운 신인"이라 평가하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올해 케이팝 가수의 열도 상륙 릴레이는 트와이스에서 절정을 이룬다. 트와이스는 6월28일 일본 데뷔 앨범 '#트와이스'를 발표하고, 7월2일 1만명 규모의 도쿄체육관에서 쇼케이스를 펼친다. 데뷔 쇼케이스가 아레나급 행사장에서 열리는 것은 그만큼 폭발력을 가졌다는 의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카라와 소녀시대를 이을 새 주인공으로 충분한 가능성과 실력을 갖췄다. 한류 인기가 정착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진 일본에서 다시 한류 콘텐츠가 시장을 석권하는 시작일지 모른다"고 평가했다. 트와이스는 일본 SNS 계정 개설과 동시에 6만명의 팔로어를 기록했다.

이들과 함께 작년 10월 일본에 데뷔한 스누퍼는 3월22일 발표한 두 번째 싱글 '오예!!'로 사흘 만에 10만장이 넘는 판매고로 빌보드 재팬 주간차트 2위, 오리콘 주간차트 3위에 오르며 신진세력에 힘을 보탰다. 아직 일본에 정식으로 선보이지 않은 세븐틴은 2월 투어로 5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 대형 케이팝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다. 세븐틴은 현재 현지 음반사들의 끊임없는 러브콜 속에 정식 데뷔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동남아 잇는 홍콩, '한류 4.0'의 요충지

방송산업 수출 비중 아시아서 네번째
중국과도 가까워…지리적 이점 갖춰

연기자 공유와 소지섭, 이동욱, 지창욱, 그룹 JYJ의 김재중과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서현과 유리….

5월까지 홍콩을 찾는 한류스타들의 면면이다. 이미 3월부터 홍콩 팬들을 만난 이들을 포함한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성화 홍콩 통신원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두 배가 넘는 한국 스타 관련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비롯해 SBS '런닝맨',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등 한국 예능프로그램과 함께 SBS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 현지 전파를 타고 있다.

다시, 홍콩이 한류 열기를 점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류 문이 닫히고 있는 시기에 홍콩이 그 대체 시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자임하고 있는 셈이다.

홍콩의 한류 관련 지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2월 내놓은 2015년 기준 '2016 방송영상산업백서' 등에 따르면 한국 방송산업 수출은 아시아의 비중이 가장 크며 그 중 홍콩(5.1%)은 일본(32.9%), 중국(24.3%), 대만(10.1%)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한다. 또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출의 경우 "중국 수출은 2015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냉각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만과 태국, 베트남, 홍콩의 비중이 높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수출은 홍콩이 일본과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 비중이었다. 그 인구(720만명)의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시장으로 인식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성화 통신원에 따르면 홍콩은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가교로서 지역적 역할을 하며, 공연장 등 기반이 튼튼하고, 한국과 비교적 가까운 데다 중국 대륙의 팬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여건과 추이에 비춰 홍콩은 한동안 한류의 거점이자 시장으로서 새롭게 각광받을 전망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점점 더 노골적인 중국의 한류 콘텐츠 표절

후난위성TV 등 베껴놓고 우기기

중국의 '한한령'이 한류를 옥죄는 상황에서도 현지 팬들은 매체 광고, 기부 등으로 한류스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반면 한류 콘텐츠 표절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선행과 불법이 혼재하는,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한류 풍경이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엑소 팬클럽은 8일 엑소 데뷔 5주년을 축하하는 광고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대량 내거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엑소 5주년' 문구, 멤버들 각각의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와 전광판 등 모두 11개의 광고가 걸릴 예정이다.

연기자 박해진의 중국 팬사이트 해풍후원회 회원들은 박해진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최근 중국 서부 사막화 지역 개선을 위한 '백만삼림계획'에 나무 520그루를 기부했다. 이에 박해진도 6000그루를 보탰다. 신화 팬클럽 신화창조의 현지 회원들도 데뷔 19주년을 맞아 중국 북부 내몽골에 1998그루의 나무를 심는 '신화숲' 조성을 위한 모금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막화 방지를 위해 4월부터 나무를 심고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한류 콘텐츠 표절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후난위성TV는 지난해부터 SBS '영재발굴단'을 베낀 '신기한 아이'와 tvN '삼시세끼'를 모방한 '동경하는 삶', SBS '판타스틱 듀오'를 흉내 낸 '위상허니창' 등을 편성했다. 장쑤위성TV도 KBS 2TV '노래싸움 승부'와 SBS '신의 목소리'를 베낀 '더 나은 소리'와 '끝까지 노래한다'를 방송했다. 나아가 '런닝맨' 중국판인 '달려라 형제'를 SBS와 공동제작해온 저장위성TV는 최근 시즌5 제작에 돌입하면서 프로그램 제목을 '달려라'로 바꿨고, 중국판 '나는 가수다'를 만든 후난위성TV도 최근 제목을 '가수'로 바꾸고는 "자체 프로그램"이라 우기고 있다.

중국 상하이의 의류업체 메이터시방웨이가 설립 22주년 기념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제작한 길거리 광고물이 트와이스의 최근 앨범 '트와이스코스터:레인2' 표지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앞서 중국인들은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의 청천백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맹비난한 바 있어 이 같은 표절 의혹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김원겸 기자

이준기-전혜빈 역시나 열애설 네 번만에 인정



이준기 전혜빈

연기자 이준기(35)와 전혜빈(34)이 네 번의 열애설 끝에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드라마에서 동료로 만나 친구로 지내다 2016년 상반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열애설이 계속 불거진 데에 대해 "서로 공통점이 많은 것에 대한 호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에 확신을 얻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려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14년 KBS 2TV '조선총잡이'에 함께 출연한 뒤 2015년 5월 한 호텔의 피트니스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첫 열애설이 불거졌다. 그해 8월에는 비슷한 디자인의 목걸이를 착용한 것이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돼 스캔들에 휘말렸다. 한 달 뒤 자동차 데이트를 즐겼다는 세 번째 열애설이 제기됐지만 소속사는 "지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잇단 부인과 인정 사이에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이준기는 현재 케이블채널 tvN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내 귀에 캔디'에서 박민영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박유천 고소녀 송모씨, 국민참여재판 요청

가수 박유천(31)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첫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박유천 측은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오지은, 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로 방송 복귀



오지은

연기자 오지은이 부상의 아픔을 딛고 컴백한다. 오지은은 24일 첫 방송하는 KBS 2TV '이름 없는 여자'로 다시 안방극장에 나선다. 오지은은 지난해 10월 MBC 주말극 '불어라 미풍아' 촬영 도중 전치 8주의 발목 전방인대 파열 부상을 당해 중도 하차한 바 있다.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오지은은 뜻하지 않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이름 없는 여자'의 주연으로, 2011년 KBS 1TV 일일극 '웃어라 동해야'로 자신을 발탁한 김명욱 PD와 다시 손잡게 됐다.

편집 | 김청조·김대건 기자

데이트도 당당하게…사랑이 꽃피는 이동건-조윤희 커플

강남 한복판서 애정 과시…팬들도 응원

연기자 이동건·조윤희 커플이 사랑으로 봄의 따스함을 만끽하고 있다. 주위의 시선을 모으는 스타이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 굳이 숨기거나 감추지 않아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지인들과 함께 일본 도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다. 또 최근에는 한낮에 서울 강남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 많은 팬들에게 포착됐다. 스타들이 연애할 때 주로 활용하는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데이트를 즐겼다.

또 뮤지컬 '드립걸즈'와 연극 '유도소년'을 함께 관람했다. 두 작품 모두 조윤희와 인연이 있는 개그우먼 김영희와 연기자 오의식이 출연 중이다. 김영희는 조윤희가 현재 진행 중인 KBS 쿨FM '조윤희의 볼륨을 높여요'의 고정 게스트이며, 오의식은 지난해 케이블채널 tvN '피리부는 사나이'에서 공연한 바 있다.

이처럼 이동건과 조윤희는 2월26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호흡을 맞춘 뒤 이를 현실로도 이어가 연인이 된 뒤 적극적으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어 오랜만의 휴식기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조윤희의 주변 사람들까지 챙기는 이동건의 '외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라디오의 여성 게스트들을 위해 '감사와 애정을 담아'라는 짤막한 메시지가 담긴 꽃다발을 깜짝 선물로 보내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을 동료들도 적극 응원한다. 뮤지컬을 보러 온 두 사람에 대해 김영희는 SNS에 "이동건 형부와 윤희 언니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고, 꽃다발 선물에는 "형부의 외조!"라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조윤희 이동건

음악 랭킹

자료: 멜론
3월 27일~4월 2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밤편지	아이유
2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하이라이트
3	KNOCK KNOCK	TWICE
4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5	부담이 돼 (Feat. 휘인)	정키
6	Marry Me	마크툽, 구윤회
7	Fine	태연
8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9	Rookie	Red Velvet
10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